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삼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법공양 페이지

# 내가 있기에 우주도 있고 세상도 있고...

오늘 법당에 올라오다 보니 마당에 죽 서 계시면서 비를 맞고 있는 걸 보니까 내 가슴에 비가 내립니다. 이 모두 우리가 과거세부터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니 여기서 조금도 실패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꼭 다시 한자리 합시다.

마음공부 한다고 이렇게 처음 온 분도 있고 중간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먼저 와 아주 많이 증득해서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 차원이라는 것은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아직 밑에서 쫓아오는 분들은 내가 항상 말했듯이 한군데다 몰두해서 잘못된 거, 잘 된 거를 다 거기 놓으라고 일렀으니 그대로만 하시고, 또 공부를 더 해나가서 야, 모두가 틀이 아니구나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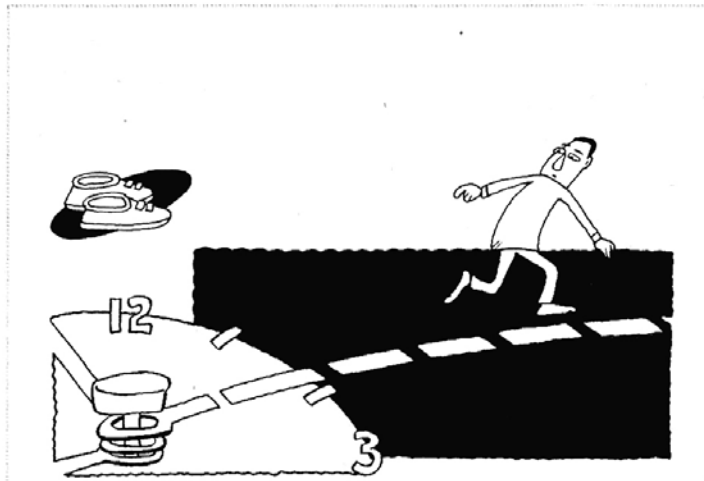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무조건 주는 것이 보살의 행이요 무조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너는 잘했으니, 너는 못했으니 하고 이유를 따지는 게 부처님의 법이 아닙니다. 너는 참 진실하게 잘하고 간다 이렇게들 말할 하죠. 그러나 진실하게 잘하고 간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죠. 평등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 진실하게 잘 해간다면 또 못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있다 없다'가 없다 이겁니다. '있다 없다'가 없다. '있다 없다'를 나눈다면 법정에서나 '있다 없다'를 논의하지 이 부처님 법에서는 그냥 등글게 여여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씩씩을 쓸 때 좀 더 너그럽고 지혜롭게 의리와 도리를 가지고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비, 아니 그건 모두가 이름이니까요, 이름 없는 그 진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런 과정이 없는 진짜 부처가 될 수 없거든요.

'내가 죽은 이름없는 이름이여' 이랬던 건 나부터 죽어야 모두가 틀 아니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자부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틀 아니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누가 왔으면 아무 생각없이 그냥 '어서 와!'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했을 뿐이지 뭐 거기에 있습니까. 또 그것이 바람처럼 달아 나갔어요. 또 왔어요, 또 만나고 또 보고 또 듣고, 남편 만나고 자식 만나고, 부인 만나고 자식 만나고 형제 만나고 이래도 그냥 만났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또 뒤에 생각이 나면 또 거기다 놓으시란 말입니다. 놓고 그냥 하면은 참이 없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죄나 업이나 이런 것도 다 없다 이겁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가운데서 여여하게 그대로 삶을 정말 통쾌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했던 말 자주 해서 듣기 싫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까. 노승이 공양할 시간도 안되고 종도 안 쳤는데 바리때를 들고 나와서 어정어정 거린다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스님의 제자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노승이 시간도 안되고 종도 안 쳤는데 바리때를 들고 나온 것은 그 재가자 하는 것만큼 깨뜨려주려고 일부러 불발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냥 '야, 시간도 안되고 종도 안 쳤는데 왜 나와서 어정 거리시냐.'고 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또 잘못구나.' 이라고 뜯어내려 갔죠. 들어가시는 걸 보고서 '저 스님은 말후구(末後句)를 몰라.' 말후구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빙정거린다는 거죠. 그분은 말후구까지 박살을 내주려고 내려왔는데 말입니다.

## 내가 공해 없으니 함이 없이 하고 죽은사람 산사람 돌아닌 도리알아 나와 남이 화해 나투는걸 알아야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세상 모두가,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나로부터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모두가 없는 거니까 나로부터 공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공을 아신다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부처를 만나 듣고 나왔는데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첫번째에 '내가 죽은 이름없는 이름이여' 이랬습니다. '내가 죽은 이름없는 이름이여'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내가 공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근접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어도, 나를 발견했어도, 수덕 겁을 거쳐나오면서 그 모든 악업이나 선업 즉 말하자면 의심과 착과 욕심 그런 것이 모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음이 있으니까 전부 결과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용으로 행하라. 그냥 행하라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행하라 이런 거죠. 이게 두 번째의 틀이 아닌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틀이 아니게 하려면 그 습관과 관습, 미움과 이쁨, 착과 욕심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가능한 거죠. 닥치는 대로 놓으면은 이게 틀이 아닌 게 나오죠. 거기다 놓고 가다보면 다 나오게 되 있거든요.

## “발자국 뎀사이 없듯 집착하지 마세요 고정됨 없는줄 알면 그대로 실행해야”

놓아라 하는 소리를 헤아릴 수 없이 했을 겁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오직 내가 있기 때문에 나 한군데서 모두가 나가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군데서 모든 게 나갑니다. 우주도 있고 세상도 있고 과거·현재·미래도 있고 생사도 있고 말입니다. 이 모두가 전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알았으니 말입니다.

생명의 근본은 불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지고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일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교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게 뭐 그렇게 따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불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이라는 자체는 뭐냐. 내가

공이다. 고정됨이 없다. 고정됨이 없으니가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어차피 지은 거 그냥 놓아라. 그것은 접두기가 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전자부터 한 것. 알맹이가 해결을 해야지 왜 시자라고 하는 이 집이 아니라 합니까. 일일이 왜 상관 해요. 울고 짜고 바깥으로 해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 참 말을 하지 않고도 대답할 수 있는 쪽만 어른이시고 또 그 상황을 바라는 것이 대답이라고 해서야만 그런 좀 벗어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는 시간도 없고 가는 시간도 없는데 시장하면 잡수셔야죠.' 했으면 얼마나 좋았죠. 글썽, 그런 지혜도 없이 큰스님 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큰스님을 괜히 고민을 하게 만들고 '아이구, 내가 괜히 일찍 내려가서 그랬구나. 아직 잊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 뒤라고 이걸 마무리를 하나?' 하고 오히려 그 분이 바보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보가 된 분이 아니죠. 모르는 상대방들이 바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어느 제자가 귓속에 대고 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하니까 '그게 좋겠구나.'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지 않습니까. 생략해서 말하자면 웃으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얘깁니다. 웃음소리로써 말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꼴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허여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 생활 속의 불교 212

##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닥치는 경계가 업보나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는 거기가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딪혀 오는 모든 것을 나를 일깨워 주기 위한 스승으로 알아 감수하게 생각하며 승두리째 놓아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기가 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몰락 놓아 버려라. 그래야 그 속에서 벗어나 수가 있다.

내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이 내 앞에 닥친다. 그러므로 누구를, 무엇을 원망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설사 남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상대와 나의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 '주인공' 당성만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한 생각 돌려놓아야 한다. 남이 내게 나쁜 것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부족함 때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한다. 또 남이 나를 못살게 괴롭혔다 해도 나로 인해 그에게 수고를 끼쳤으니 오히려 미안한 일이다. 그렇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괴롭혔다. 나를 속였다. 내게 해를 가했다는 따위로 생각한다면 설사 공부할 마음을 내었다해도 모두 허사가 된다. 고로 이 공부는 첫째도 나로부터, 둘째도 나로부터, 셋째도 나로부터, 그렇게 귀절지어 나가야 한다.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니 모든 경계를 너그럽게 모두 내 탓으로 돌려서 놓고 간다면 바로 내 속에서도 중생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쫓아가게 되므로 그대로 천백억 화신으로 나온다.

공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다. '꿈은 꿈이고 생시는 생시다.' 라고만 안다면 깊은 곳을 알지 못한다. 꿈과 생시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경계를 돌로 보지 않아 꼬달리지 않을 만큼 되어야 한다. 꿈이 꿈인 줄 알면 놀아나지 않듯이 번뇌가 꿈인 줄 밝히는 사람은 번뇌에 속지 않는다.

미세한 한 마리, 풀 한 포기라도 업선여기지 않아야 한다. 벌레를 보고 징그럽다 하고, 똥을 보고 더럽다 하지만 그것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형상,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아니니 주인공 자리에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구니로 보이고 악인으로 보일 때는 "이것은 부처님의 나부심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몸 빌고 손 빌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라. 부처님께서 법계에 두루하며 잘나고 나고 드심이 실 사이 없으니 내게 닥치는 일체의 경계도 부처님의 나고 드심이라 나를 다지려 함이다. 그러기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이 말없는 풀 한 포기라도 나를 주장자로 내리치는 스승이라 하는 것이다.

수행 중에는 특히 안으로부터 많은 경계가 일어났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할 때에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 경계가 그대로 마가 되는 것이니 바로 중생심 가운데 미묘하게 숨어 있는 '좋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의 유혹인 것이다. 그러한 유혹은 아주 은밀한 만족감을 낳게 되는 바, 그 마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좋은 경계든 심은 경계든 집착하는 것은 바로 마에 사로잡힌 것이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듯이 경계가 있음으로써 진화 발전할 수 있느니 경계는 나를 수행케 하는 힘이다.

협찬: 김 덕 기